

생태사회와 불교

불교국가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이제 발전 기준은 '생산' 아닌 '행복'

기독교 국가 잘살고, 불교국가 못살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까? 그것은 대체로 GNP(Gross National Product)로 불리는 '국민총생산'이나 GDP(Gross Domestic Product)로 불리는 '국내총생산'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2012년 한국의 GDP는 15위이며 1인당 GDP가 34위로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지표의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곧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이 GNP와 GDP 평가기준의 공통점은 바로 '생산(Product)'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잘살고 못살고, 앞서고(先) 뒤처지는(後) 기준은 생산량이 많을수록 선진국인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도 생산량이 많은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의 나라를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과연 모든 나라가 그 나라처럼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한때 "기독교 국가가 잘 살고, 불교국가는 못살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연히 선교해온 개신교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날의 위기는 바로 한정된 지구자원에서 무한정한 생산을 해 온 잘사는 선진국의 소비와 바로 그 생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위기와 절멸의 책임은 바로 선진국에게 더 많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탐욕과 과소비의 죄로 인해 초래된 위기에 대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살라는 계몽은 정말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불행히도 위기의 책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가장 늦게 받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세계질서인 셈이다. 사실 그 많은 인구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그 가난 덕분에 잘사는 나라의 과소비와 풍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선 자원이 무한하다는 잘못된 전제위에 만들어진 경제학의 기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동시에 생산(Product)중심의 기준과 척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기를 초래한 잘못된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생태 환경적 가치를 담은 녹색GNP의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불교국가 부탄, 세계의 희망이 되다

1972년 16세의 나이로 불교국가 부탄의 4대 국왕이 된 지그메 싱에 왕추크 국왕은 GNP가 물질적 탐욕을 조장하고 자원과 인간은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부와 국민들이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소수만이 편만한 삶을 살고 있고 반면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과 빈곤, 소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위해 자원착취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급기야 전쟁과 갈등 대립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개개인의 정서적, 영적 삶의 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는 대안으로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도)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는 2006년까



부탄 불교의 동자승들(사진 왼쪽)과 부탄 학생들(사진 오른쪽).



지 34년간 일관되게 이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년 전 까지만 해도 이 사례는 세계의 웃음거리였다.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고립되어 세계적 흐름을 모르는 이상한 불교왕국의 정책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어느 누구도 웃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웃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들의 방식이 위기를 불렀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것임을 깨닫고는 지금 전세계가 앞다투어 그들의 철학과 사회적 실천을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왕추크 국왕은 국민의 행복이 왕보다 중요하다고 하여 헌법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키로 하고 왕권을 내놓아 평민으로 돌아가 더욱 감동을 주었다.

세계국가들은 '생산'이 척도이지만, 부탄은 '행복'을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5대국왕부터 이 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국민총행복을 위해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채택했다. ①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발전, ②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 ③ 부탄의 전통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문화의 보전과 증진, ④ 앞의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協治)가 그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수준을 구성하는 9개의 규범적인 영역을 정했다. ① 심리적 웰빙 ② 건강 ③ 교육 ④ 시간 활용 및 균형 ⑤ 공동체의 활력 ⑥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 ⑦ 생태다양성 및 복원력 ⑧ 생활수준 ⑨ 좋은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그리고 72개의 국민총행복 지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매 2년마다 국민총행복지수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브라질 리우+20 등서 적극 제안된 GNH

부탄 GNP 2012달러로 세계 112위 무상의료와 교육 등으로 빈부 격차 없어 국가별 행복도 조사서 8위 차지 행복 척도...녹색 GNP기준 전환 필요

한국의 1인당 GNP가 23,679달러로 세계 34위인데 비해 부탄은 겨우 2,012달러로 112위 국가로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한다. 그러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왕까지 숲의 나무밑에서 살 정도로 빈부의 차이가 없다. 84-98년 14년 동안 평균수명은 19년 늘어 66세를 기록했고 교사 순환 근무를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가 이뤄졌으며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국가이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부탄은 세계 8위를 차지했다. 1, 2위는 덴마크와 스위스, 미국은 23위였고, 재미있게 한국은 102위였다. 한국과 부탄이 뒤바뀐 것이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숲 보호를 위해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매년 수 천명 선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CSD, 리우 +20)에서 이 국민총행복지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다. 이제 더 이상 GDP개념을 사용하는 세계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국제적합의였 다. 그로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소득과 실제 삶의 만족도와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다. 이미 프랑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칼립비 아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를 설립, 총체적인 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중이며 캐나다와 영국도 행복지수나 국민행복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의 '행복 경제학'

스웨덴의 생태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여사가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는 라다크에서 생활하면서 쓴 <오래된 미래(The Ancient Future) - 라다크에서 배운다>에서, 산업화가 빼앗아 간 인간의 순결한 속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태사회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부탄의 GNH에 감동하여 이를 토대로 '행복의 경제학(Economic of Happiness)'을 제안하며 세계를 돌며 계몽하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은 우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을 강조한다. 농업의 지역적 자립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운동(Co-operative: Co-op)이나 생산자협동조합운동(Worker's Collective)을 강력하게 장려한다. 일단 외부세계와 국제사회의 의존도를 줄여야만 폭력적 세계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도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지역의 대안에너지를 강조한다. 실제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는 거대한 플랜트이며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강력한 중앙 통치를 전제로 한 에너지공급 시스템이다. 풍력, 태양력, 파력, 조력 등의 대안 에너지는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소셜비즈니스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강조한다. 지역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 복지와 완전고용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인 것이다.

이를 위해 소액대출운동(Micro Credit)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통화운동(Local Money)', '공정무역(Fair Trade)' 등도 강조하고 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2년 단위로 조사해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정책의 계획, 정책 결정, 수행과정에 국민총행복(GNH)을 반영하고 모든 국가정책이 국민총행복에 적합인지 스크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 박근혜 신정부의 인수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는 중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도 이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재편하여 미래의 희망과 생태적 대안사회의 단초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유정길 (에코보다)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1,370,000원 ■ 상의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보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055)867-8009 문의 및 접수: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빈도제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빠른 교체속도 (LED형)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빔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